김주찬

양현종

‘FA 큰손’ KIA “올해는 ‘집토끼’에 집중”

주장 김주찬–구단 ‘동행’ 공감대…양현종 계약 초미 관심

‘예비 FA’ 김선빈·안치홍·김세현 등 내년 시장까지 염두

프로야구 FA(자유계약)시장이 개장했다. ‘FA 큰손’으로 통했던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관람자로 ‘집토끼’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7일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8명을 공시했다. FA 자격을 획득한 22명 중 임창용(KIA), 김성배(두산), 이용규(한화)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는 이호준(NC)를 제외한 18명이 시장에 나왔다.

KIA 김주찬을 포함한 18명은 8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을 하고, FA계약을 할 수 있다.

그동안 KIA는 스토브리그를 달구는 큰 손이었다.

외야수 김주찬·이대형, 투수 윤석민 등과 화제의 계약을 했던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는 FA 시장을 통해 ‘대어’ 최형우를 영입했다. KIA는 최형우에게 사상 첫 ‘100억 사나이’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줬고, 최형우는 팀에 열 한 번째 우승을 선물했다.

그러나 KIA는 이번에는 ‘캡틴’으로 올 시즌 통합 우승을 이끈 김주찬과 ‘첫 통합 MVP’의 양현종에 집중하면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주찬은 지난 2012년 4년 50억에 도장을 찍고 ‘우승’을 외치며 광주로 왔다. 김주찬은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느라 1년을 더 기다려 FA자격을 재취득했다. 극심했던 초반 슬럼프를 딛고 반전의 시즌을 보낸 김주찬은 ‘우승팀 캡틴’이 되어 두 번째 FA 협상을 앞두고 있다.

양측의 공감대는 형성됐다. 내년이면 김주찬은 만으로 37이 되는 ‘18년 차 베테랑’이다. 적지 않은 나이와 주장으로서 생애 첫 우승을 이룬 팀에 대한 애정은 KIA에 우선 무게가 쏠린다. 구단도 김주찬과 마지막까지 동행하기를 바란다. KIA 박한우 사장은 축승회 자리에서 ‘동행’을 이야기하며 “우승 주역을 모두 잡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다.

‘FA가 아니지만 FA 같은’ 양현종의 계약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겨울 FA 양현종이 해외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KIA는 최형우 영입과 나지완 잔류를 위해 총알을 소진했었다. 이후 양현종이 KIA 잔류를 선언하자 양측은 단년계약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공식적으로 FA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FA같은 재계약을 하게 된 이유다.

올 시즌 양현종은 통산 100승, 22년 만의 토종 선발 20승, 한국시리즈 MVP에 이어 정규시즌 MVP까지 이루며 KIA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몸’이 됐다. 여기에 양현종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타이거즈 선수로서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잔류 의사를 밝혔다.

서로에 대한 애정은 확인했지만 진지한 만남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KIA 관계자는 “김주찬은 시리즈가 끝나고 바로 부산으로 갔다고 한다. 양현종도 시상식 참가로 바쁘기 때문에 바로 자리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한다. 해줄 것이다”고 언급했다.

KIA가 FA시장 관람자가 되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겠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내년을 기다리는 내부 ‘예비 FA’들의 몸집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내년 시즌을 보낸다면 ‘타격왕’ 김선빈과 ‘첫 20홈런’의 안치홍 그리고 ‘마무리’ 김세현 등 V11의 주역들이 FA 신분이 된다.

내년 시장까지 계산한 ‘FA 큰손’ KIA의 눈이 내부로 향해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FC광주엔젤 지적장애인축구단 5연패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 인천 퍼펙트 6-0 제압

FC광주엔젤 지적장애인축구단이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한동기 감독이 이끄는 FC광주엔젤은 지난 5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생활체육축구공원에서 열린 제7회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인천 퍼펙트를 6-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8강에서 대전 하늘소리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2 승리를 거둔 FC광주엔젤은 이어 세종FC를 2-1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FC광주엔젤은 전반 시작 2분 만에 선취골을 넣었다. 정수민이 ‘게임메이커’ 한성주의 패스를 받아 첫 골을 넣었고, 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또다시 헤딩골을 터트렸다.

23분에 나온 이종은의 중거리 골로 3-0으로 전반을 마친 FC광주엔젤은 후반에도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다. 정수민은 후반 7분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세 번째 골을 넣으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준석과 강대용도 득점 행진에 가세하면서 6-0 승리를 만들었다.

이날 승리로 FC광주엔젤은 지난 2013년 제3회 대회 우승 이후 5년 연속 대회 정상에 오르며 우승기 영구보관의 기쁨을 누리는 등 다시 한번 전국 최강의 장애인축구팀임을 입증했다.

중원을 장악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한성주가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고,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한 정수민이 득점상(4골)을 받았다. 서문학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동기(북구청) 감독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훈련에 참여해 오늘의 쾌거를 이룩한 선수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우리 장애인 축구선수들도 실업팀이나 직장운동 경기부가 생겨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미니버스’ 시승식

시장애인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애인체육회)가 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미니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승식에는 시장애인체육회 이명자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와 광주시청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휠체어용 승·하차 리프트 운전 시연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에 확보한 차량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시행한 2017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승합차량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된 것으로 기금 2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원이 할애됐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전국 시·도 장애인체육회 최초로 특장 미니버스를 확보하면서 지역 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맞춤형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및 대회 수송지원 등 지역 장애인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

‘52홈런’ 거물 신인

아메리칸리그 MVP 경쟁

‘WS 우승’ 작은 거인

양키스 에런 저지 신인 최다 홈런

휴스턴 알투베 타율 0.346·200안타 1위

17일 수상자 발표

양키 제국의 거물 신인 에런 저지(25·뉴욕 양키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선물한 ‘작은 거인’ 호세 알투베(27)가 장외 전쟁을 펼친다.

MLB닷컴은 7일(이하 한국시간)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로 선정하는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사이영상, 신인왕, 감독상 최종 후보를 공개했다.

투표는 포스트시즌이 열리기 전에 이미 끝났다. 정규시즌 성적만 놓고 수상자를 결정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아메리칸리그 MVP다. 후보는 저지와 알투베, 호세 라미레스(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등 세 명이다.

라미레스도 타율 0.318, 29홈런, 83타점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시선은 저지와 알투베에게 향한다.

에런 저지

알투베

저지는 타율은 0.284로 다소 낮지만, 52홈런을 치며 아메리칸리그 홈런 1위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역대 신인 최다 홈런 기록(종전 1987년 마크 맥과이어 49홈런)도 세웠다. 타점은 114개로 아메리칸리그 2위, 출루율도 0.422로 2위다. 키 2m1㎝의 대형 신인 외야수인 저지는 아메리칸리그 신인왕은 사실상 확보했다.

알투베는 1m68㎝의 단신 내야수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존재감은 엄청나다.

알투베는 0.346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1위에 올랐다. 아메리칸리그에서 유일하게 200안타(204개) 고지를 밟기도 했다. 도루(32개)는 아메리칸리그 3위다.

올해 가을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휴스턴은 양키스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했고, 월드시리즈 패권까지 차지했다. 포스트시즌에서는 알투베가 판정승을 거뒀다.

내셔널리그에서는 홈런왕 장칼로 스탠턴(마이애미 말린스)의 MVP 등극이 유력하다.

메이저리그는 8일부터 수상자들을 차례로 발표한다. 8일 최고 수비수를 가리는 골드글러브 수상자를 발표하고, 9일 선수들이 직접 뽑은 최고 선수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즈’ 결과가 나온다. 10일에는 포지션별 최고 타자가 받는 실버슬러거의 주인공을 가린다. 메이저리그는 14일 신인왕, 15일 감독상, 16일 사이영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17일에는 MVP 수상자를 공개한다. /연합뉴스

‘리우 올림픽 양궁 2관왕’ 윤미진 국가대표 재도전

리우올림픽 양궁 2관왕인 구본찬(현대제철)과 시드니와 아테네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윤미진(여수시청) 등이 국가대표에 다시 도전한다.

이들은 7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막한 2018 국가대표 2차 재야 선발전에 출전해 태극마크를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세계 최강인 양궁에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입상보다 치열한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대표선수가 아닌 ‘재야 선수’들을 대상으로 1차 선발전을 거쳐 남녀 각각 32명을 가리고, 이들이 다시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과 2차 선발전을 치러 12명씩을 추린다. 이들 12명과 현 국가대표 8명이 내년 3월 3차 선발전을 치러 최종적으로 국가대표 남녀 각각 8명이 선발되는 것이다.

이번 2차 대회에는 1차 선발전을 통과한 선수들과 상비군 선수 등 리커브 남자 33명과 여자 34명의 선수가 겨룬다. 10일 6회전 결과까지를 합산해 상위 16명을 우선 선발하고 13일까지 7~11차전 결과를 더 해 상위 12명을 최종 선발한다.

지난해 리우올림픽을 제패하고 돌아온 후 올해 태극마크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던 구본찬이 1차 선발전에서 3위에 올라 2차에 진출했다.

‘왕년의 신궁’ 윤미진도 ‘바늘구멍’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르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땄던 윤미진은 지난달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